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2017. 4. 23. 언어정보학회
임 동 훈(이화여대)

1. 처소의 개념

- 처소(local)=공간+시간
- 처소가 핵어(head)의 의존어(dependents)로 나타날 때 한국어는 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처소 기능의 구분

- 1차적 구분: 위치(locative) vs. 방향(directional).
- 2차적 구분: 방향이 다시 출처(source)와 목표(goal)로 나뉨. 여기에 경로(path)가 추가되기도 함.
- 3차적 구분: 1차적, 2차적 구분에 위, 아래, 내부, 외부와 같은 상대적 위치, 즉 위상(位相) 개념을 가리키는 요소가 덧붙음

[참고] Talmy(2000:340)에서는 Path 범주가 출처, 목표, 경로, 위치 개념을 가리키는 벡터(vector) 부문과 위, 내부 등의 개념을 가리키는 배치형상(conformation) 부문으로 구성된다 고 하였는데, 전자는 처소 기능의 2차적 구분과 후자는 처소 기능의 3차적 개념과 관련됨.

(1) 터키어의 처소격(Lyons 1968:291, Creissels 2009)

위치격(locative)	'in the house'
향격(allative)	'to the house'
탈격(ablative)	'from the house'

[참고] Lyons(1968:291), Blake(1994:3)에서는 향격 대신 여격(dat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그러나 향격이 여격 표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는 논의에서는 향격이라는 용어를 고수함.

(2) 핀란드어의 처소격(Lyons 1968:299, Blake 1994:155)

	위치	출처	목표
∅	위치격(essive)	부분격(partitive)	변성격(translative)
내부	내부재격(inessive) 'in'	내부탈격(elative) 'from (inside)'	내부향격(illative) 'into'
외부	재격(adessive) 'at/near'	탈격(ablative) 'from (outside)'	향격(allative) 'to/towards'

- 내부와 외부의 대립을 유표성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가 유표적이고 외부가 무표적임. 그래서

‘내부/외부’ 대립은 ‘내부/비내부’의 대립으로도 파악할 수 있음.

(3) 헝가리어의 처소격(Haspelmath 2009)

	위치	출처	목표
IN	내부재격(inessive)	내부탈격(elative)	내부향격(illative)
ON	상위재격(superessive)	상위탈격(delative)	상위향격(sublative)
AT	재격(adessive)	탈격(ablative)	향격(allative)

- 위치와 방향(출처, 목표) 차원에 ‘in, on, at’과 같은 위상(位相) 차원이 덧붙음

(4) Hjelmslev의 분류

- 탈격(ablative) [+from]
- 향격(allative) [+to]
- 위치격(locative) [-from, -to]
- 경로격(perlative) [+from, +to]

-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은 위치(location), 출처(source), 목표(goal)나 목적지(destination), 경로(path)의 4가지를 흔히 표시함.

- 대격(accusative)이 일부 처소 표시의 기능도 하는 언어는 [+to] 속성을 지닐수록 대격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 원래 인도유럽어에서는 [+to]인 목적지와 [+from, +to]인 경로가 대격으로 표시되었음(Blake 1994:153).

- Hjelmslev(1935, 1937)은 격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함. (4)에서 보듯이 격을 다가감(rapprochement, ‘to’)과 멀어짐(éloignement, ‘from’)이라는 방향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첫 번째 차원이고, 공간적 이동에서 접촉이 일어나거나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접경(coherence, 경계 닿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두 번째 차원임(Hjelmslev 1935:128). 영어에 적용하면 ‘she went into the building’은 [+coherent]에 해당하고 ‘she went to the building’은 [-coherent]에 해당함(Blake 1994:39). 접경 여부는 처소 기능의 3차적 구분과 관련이 있으나 이는 의미상의 개념이므로 내부, 상위 등을 가리키는 위상 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한국어는 처소 기능의 1차적 구분에 따라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격과 방향을 가리키는 격으로 나뉘고 후자는 2차적 구분에 따라 다시 탈격, 향격, 경로격으로 나뉨. 한국어에서 위치격은 ‘에, 에서’로, 탈격은 ‘에서’, 향격은 ‘에, 로’, 경로격은 ‘로’로 표시되며, 형식 중심으로 기술하면 ‘에서’는 위치격과 탈격을, ‘에’는 위치격과 향격을, ‘로’는 향격과 경로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 3차적 구분인 위상이나 접경 개념을 적용하면 이들 조사의 세밀한 용법 차이를 포착할 수 있음.

- 예컨대, 위치격을 표시하는 ‘에’, ‘에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향격을 나타내는 ‘에’, ‘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동일한 형식인 ‘에서’가 위치격과 탈격을 표시하고 ‘에’가 위치격과 향격을 함께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로’가 향격과 경로격을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격의 분류와 합류

- 처소를 나타내는 격은 주격, 대격 등의 문법격과 달리 공간과 관련된 일정한 의미를 표시함. 처소격 표지와 공간적 의미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공간적 의미에서 격 표지가 같고 격 표지가 합류(syncretism)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 첫째 기준: 지점과 지역. 시간 개념에서는 시점(point)과 시폭(interval)이 구분됨. 공간 개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점(point)과 지역(area)을 구분할 수 있음. 지점은 확장되지 않은 공간이며, 지역은 확장되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공간임.
- 출처(source)와 목표(goal)는 지점이 아니라 지역, 즉 경계가 있는 확장된 공간과 관련된다 할 수 있음. 이 경우 '경계' 개념을 바탕으로 경계 건너기가 상정될 수 있음. 출처는 경계 밖으로 건너기와 관련되고 목표는 경계 안으로 건너기와 관련됨. 다만, 목표는 출처와 달리 미래의 일이므로 개념상 존재하는 경계 건너기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둘째 기준: 접경 여부. 지역, 지점 개념에 방향 개념이 결합하면 접경[경계 닿음] 여부에 따라 의미가 세분될 수 있음. 목표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접경의 의미를 함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전자는 '에'에 의해, 후자는 '로'에 의해 표시됨. 경계 닿음의 함의가 없는 '로'의 경우는 지점과 지역의 구분이 사라짐.
- (5), (6)에서 보듯이 목표를 표시하는 '에'는 지역 개념을 전제하고 경계 닿음을 함의하므로 이러한 개념이 상정되기 어려우면 비문을 초래함(홍운표 1978, "공간적 영역이 존재하는 지점", 정희정 1988, "일정한 공간적 장소를 전제"). 반면, '로'는 목표를 표시하나 경계 닿음의 함의가 없어 지점과 지역의 구분이 사라지므로 지역 개념의 상정이 어려운 경우도 비문을 초래하지 않음.

(5) 가. *나는 뒷동산의 그 밤나무에 갔다.
나. 나는 뒷동산의 그 밤나무로 갔다.

(6) 가. 나는 그 사람의 {앞, *옆}에 갔다.
나. 나는 그 사람의 {앞, 옆}으로 갔다.
다. 나는 동쪽{*에/으로} 갔다.

<의미 중심 체계>

① 위치: 에¹, 에서¹

- '에¹'은 무표적 위치를 표시하고, '에서¹'은 경계 내부에 초점을 두어 위치를 표시함. '에서¹'은 '에¹'이 나타내는 위치 개념에 내부라는 위상 개념이 결부된 것. '에서¹'이 내부를 표시하면서 '에¹'은 비내부를 표시하게 됨.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위치격은 '내부/비내부'의 구분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내부/비내부'를 나타내는 '에¹'과 '에서¹'의 구분은 상적 구분과 연관될 수 있음. '에¹'은 위치를 내부에 관심 없이 한 덩어리로 가리킨다는 점에서 완결상적(perfective) 의미가 있고, '에서¹'은 위치를 가리키되 일정한 경계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미완결상적(imperfective) 의미가 있음.

[참고] '에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을 표시(안명철 1982), 'N-에서'는 동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태적인 장소를 표시, 이때 N이 지칭하는 장소는 부분적으로 관여됨(홍재성 1983).

[참고] 핀란드어에서는 처소 기능의 3차적 구분인 ‘내부/비내부’가 아니라 1차적 구분인 위치/방향(출처와 목표)에 따라 상적 지위가 달라짐. 예컨대 위치를 나타내는 내부재격(inessive), 재격(adessive)은 미완결상과 연관되고 출처와 목표를 나타내는 내부탈격(egative), 내부향격(illative), 탈격(ablative), 향격(allative)는 완결상과 연관됨(Richardson 2012).

Juna pysähtyi asema-lle
train stop-PAST-3sg station-ALL

“The train stopped at the station (lit. toward the station as its final destination).”

Juna pysähtyi asema-lla
train stop-PAST-3sg station-ADES

“The train stopped at the station (lit. at the station as a passing point).”

② 목표: 에², 로¹

- ‘에²’는 경계 달음을 함의하므로 목적지로서의 착점을 표시하나 ‘로¹’은 경계 달음을 함의하지 않으므로 방향을 표시함. ‘에’와 ‘로’의 대립도 행위의 끝점을 함의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되므로 완결상, 미완결상의 상적 구분과 연결될 수 있음.

[참고] ‘에’가 ‘도착하다’처럼 도착 단계에 중점이 놓이는 이동 동사와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로’는 ‘떠나다, 돌다’처럼 출발 단계나 경과 단계에 중점이 있는 이동 동사와 결합이 자유로움(정희정 1988).

③ 출처: 에서²

- 출처는 경계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경계 내부를 가리키는 ‘서’가 결합한 ‘에서’가 자연스레 출처 표지로 쓰이게 됨.

[참고] ‘에서’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것은 ‘에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동사의 성질에서 비롯됨(이기동 1981). 이동의 폭이 ‘에서’로 제시된 공간보다 클 경우 이동 대상이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어 ‘에서’가 출발점을 의미하게 됨(안명철 1982). 예) 영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 어귀까지) 달리기를 했다.

④ 경로: 로².

- ‘로’는 경계 달음을 함의하지 않으므로 이동 동사와 결합할 때 방향을 표시하는 용법 외에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하는 용법을 보이기도 함.

[참고] ‘로’는 방향을 지정하는 의미가 확대되어 경유의 의미로 쓰이게 됨(정희정 1988).

- 경로는 경계 밖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출처나 경계까지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 달리 경계와 무관한 이동의 과정을 가리키기 때문임.

- ‘에서’와 교체되지 못하는 ‘에’와 ‘에서’와 교체될 수 있는 ‘에’: (7)은 ‘에’와 ‘에서’가 교체되지 못하나 (8)은 서로 교체될 수 있음.

(7) 가. 극장에 팝콘 가게가 있다 [비내부 위치를 표시하는 ‘에¹’]

나. 극장에서 친구를 만나다 [내부 위치를 표시하는 ‘에서¹’]

[참고] ‘살다’와 같은 동사는 ‘서울{에, 에서} 살다’에서 보듯이 ‘에’ 형식과 ‘에서’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비내부 위치를 표시하느냐, 내부 위치를 표시하느냐 하는 의미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

- (8) 가. 극장에 총성이 울리다/불이 나다
 나. 극장에서 총성이 울리다/불이 나다
 다. 천장에(서) 물이 새다

- (8가)의 'NP-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에¹'인가, 목표를 표시하는 '에²'인가? 이때의 '에'는 문법성의 차이 없이 '에서¹'로 교체될 수 있으므로 목표의 '에²'로 보기 어려움. 'NP-에서'와 교체될 수 있는 'NP-에'는 '살다'류 구성을 제외하면 주로 주어-서술어 구성 앞에 온다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음. 즉 이때의 'NP-에'는 후행하는 서술어의 논항이 아님.

- '에'와 '에서'가 교체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NP-에, NP-에서'가 모두 후행 서술어의 논항이 아니지만, '에'가 전경의 의미를 표시하고 '에서'가 배경의 의미를 표시한다는 차이가 있음. 즉 (8가)는 총성이 울리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극장이라는 함축을 지니고 (8나)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배경이 되어 총성이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함축을 지님. 이때의 '에서'가 배경의 의미를, '에'가 전경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은 '에서'가 내부의 위치를 표시하고 '에'가 비내부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됨.

<형식 중심 체계>

① 에: 위치, 목표

- '에'가 위치를 가리키는 용법은 서술어에 대한 제약이 없음(9가, 나). 이러한 용법의 '에'는 일부 환경에서 그 뒤에 '다(가)'가 부착될 수 있음. 즉 타동사 구문에서는 'NP-에'가 'NP-에다(가)'로 의미 차이 없이 바뀌어 쓰일 수 있음(9다). [참고] 박양규(1972)에서는 '다가'가 결합하는 '에'의 용법을 지향(본고의 '목표')으로 파악하고 '다가'는 접근의 의미를 더한다고 봄.
- '에'가 목표를 가리키는 용법은 서술어가 이동 동사일 때로 국한됨. '에'의 목표 용법은 위치 용법이 서술어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 변이를 겪은 것이므로 '로'가 표시하는 목표 용법과 달리 '경계 달음'의 함의가 존재함(9라).

- (9) 가. 고양이가 안방에 있다.
 나. 전염병이 마을에 돈다.
 다. 철수는 안방에(다/다가) 돈을 숨겼다.
 라. 아이들은 옆집에 놀러갔다.

② 에서: 위치, 출처

- '에서'가 위치를 가리키는 용법은 동태 서술어 앞에서(10가), 출처를 가리키는 용법은 '오다'류와 '받다'류처럼 S나 O의 이동을 가리키는 서술어 앞에서 발생함(10나, 나').
- [참고] 유형론에서는 흔히 자동사절의 주어를 S, 타동사절의 주어를 A, 타동사절의 목적어를 O라고 함. 일부 학자는 S, A, O라는 용어 대신 S, A, P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뒤의 체계에서는 S가 자동사의 단일 논항을, A가 타동사절의 가장 동작주(agent) 같은 논항을, P가 타동사절의 가장 피영향자(patient) 같은 논항을 가리킴.
- '에서'가 동태 서술어 앞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에는 그 위치가 일정한 경계를 지닌 공간의 내부임을 가리킴. '서'가 내부의 위상 표지 역할을 수행함.

(10)가. 조카가 마당에서 놀고 있다.

나. 조카가 해외에서 돌아왔다.

나'. 조카가 군청에서 상을 받았다.

③ 로: 목표, 경로

- '로'는 목표를 표시하나 경계 달음의 함의가 없음(11가). 이 점에서 방향의 의미가 부각됨. 또 경계 달음의 함의가 없는 방향은 출발점에서 목표점에 이르는 경로로 해석되기 쉬움. '로'가 경로를 가리키면 목표를 나타내는 '에'와 영역이 겹치지 않으므로 둘이 함께 쓰일 수 있음(11나).

(11)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약속 장소로 출발한 사람들도 있다.

나. 철수는 지름길로 약속 장소에 갔다.

4. 대격과 상적 의미

- 앞서 위치를 나타내는 '에¹'과 '에서¹'의 대립, 목표를 나타내는 '에²'와 '로¹'의 대립이 상적 구분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음. 대격 조사 '을'도 상적 구분과 유관한 용법이 있음.

- 대격 조사 '을'이 처소 명사구 뒤에 붙는 경우.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첫째 유형: 거리와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을'이 결합하는 유형. 행위가 축적되어 달성된 공간의 양이나 시간의 양을 한계 지어 표시함. 이 경우 '을'은 행위량의 유계성(有界性, boundedness)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음. 이때의 명사구는 논항이 아니라 부가어임.

[참고] '을'은 공간상 연장이 가능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구간의 길이를 표시(홍재성 1983). '을'은 시간의 양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의 양을 나타냄(홍윤표 1978, 정희정 1988). 예) 6시간{에/을} 공부했다, 6시간{에/*을} 완주하다.

[참고] 거리와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대격을 취하는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됨(Kittilä & Malchukov 2009). 핀란드어, Inari Saami어, 러시아어에서는 시간 부사어가 상적 유계성을 가리키면 대격(accusative)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격(oblique)으로 나타남(Nelson 2007, Richardson 2012).

Tun lavluh uppâ peivi.
You-SG sing-PAST-2.SG whole day-ACC
"You sang the whole day."

Poccuh livvuadeh táán ohhoost.
Reindeer lie.down-3.PL this week-LOC
"The reindeer (will) lie down this week."

핀란드 북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Inari Saami어의 예. 전자에서는 대격 부사어가 노래 부르는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표시하지만 후자에서는 위치격 부사어가 눕는 행위의 끝나는 시점을 표시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의 어떤 시점에 눕는 행위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함(Nelson 2007).

- 서술어가 이동 동사로 국한되지 않으며(12나) 축적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서술어이면

이 유형을 취할 수 있음. 달성(accomplishment)의 상황 유형은 과정과 상태변화로 구성되므로 상태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이 유형은 전형적인 달성 상황을 표시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행위가 축적되어 달성된 공간의 양이나 시간의 양을 한계 지어 표시한다는 점에서 파생된 달성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시간적으로 한계 지어진 과정이 파생된 달성 상황에 속한다는 주장은 Smith(1997:27) 참조]

(12) 가. 십 리를 걷다, 한 시간을 달리다

나. 십 년을 통치하다,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내내 즐았다.

- 둘째 유형: 출처와 목표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을’이 결합하는 유형. 서술어가 이동 동사로 국한됨.

- 출처(source)와 목표(goal)는 지점이 아니라 지역, 즉 경계가 있는 확장된 공간과 관련된다 고 하였는데, 출처나 목표가 지점으로 개념화되는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출처나 목표 표지인 ‘에서, 에’ 대신 ‘을’이 쓰일 수 있음.

(13) 집을 떠나다/집에서 떠나다, 학교를 가다/학교에 가다

- 선행하는 처소 명사구가 지점(point)으로 개념화되면 그 뒤에 ‘을’이 쓰일 수 있으나, 처소 명사구가 내부 공간이 있는 지역(area)으로 개념화되는 맥락이라면 그 뒤에 ‘을’이 쓰이기 어려움.

(14) 가. {*밭, ?시장, 교회}를 가다

나. 지역(area) ← 밭 … 시장 … 교회 → 지점(point)

(15) 가. 밭에/*을/엘 가다, 친구 집에/*을/엘 가다

나. 시장에/?을/엘 가다, 그 시장에/?을/엘 가다

다. 교회에/를/엘 가다, 총선 현장에/을/엘 가다

- ‘에+을’ 형식: 확장된 공간이 있는 지역을 하나의 지점으로 재개념화하는 경우는 ‘에’ 뒤에 다시 ‘을’이 결합할 수 있음. ‘NP-을 V’ 구성과 ‘NP-엘 V’ 구성이 공존하는 경우는 후자에서 ‘에’가 탈락되어 전자가 생겨났다기보다 지역과 지점의 개념화 양상에 따라 ‘에’ 형식과 ‘을’ 형식으로 분화한 바탕 위에서 지역이 지점으로 재개념화될 때 이를 표시하고자 ‘엘’ 형식이 발생한 것임.

[참고] 홍재성(1983)에서는 ‘시장을 가다’는 목적지(destination)를 나타내는 보어 ‘시장에’에 강조의 양태조사 ‘를’이 부착되어 ‘시장에를’ 형성된 뒤 다시 여기서 ‘에’가 삭제되어 ‘시장을’이 되었다고 봄. 그러나 이 주장은 어떨 때 ‘에’가 생략되고 생략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셋째 유형: 처소 명사구가 달성(accomplishment)의 상황 유형과 관련된 경우. 이때 처소 명사구는 출처나 목표가 아니고 서술어도 이동동사로 해석되지 않음. 서술어와 처소 명사구가 달성의 상황 유형을 나타낼 때 처소 명사구의 처소격이 대격으로 교체됨. 즉 과정과 상태변화

로 구성되는 달성 상황에서 처소 명사구는 상태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되면 피영향자(patient)로 해석되어 대격이 표시됨. 처소 명사구가 처소격으로 표시될 때에는 서술 행위가 그 전체에 적용된다는 함의가 없으나 대격으로 표시될 때에는 서술 행위가 처소 전체에 적용된다는 전체론적(holistic) 해석이 발생함.

- (16) 가. 김 씨는 사다리에 올랐다.
 가'. ??김 씨는 10분 만에 사다리에 올랐다.
 나. 김 씨는 사다리를 올랐다.
 나'. 김 씨는 10분 만에 사다리를 올랐다.

- (17) 가.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했다.
 가'. ??1시간 만에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했다.
 나. 담벼락을 페인트를 칠했다.
 나'. 1시간 만에 담벼락을 페인트를 칠했다.

- 처소격 조사 '에' 대신 대격 조사 '을'이 쓰이면 전체성과 관련된 의미 차이가 발생함. (16가)는 김 씨가 사다리 꼭대기에 있음을 함의하나 (16나)는 이러한 함의가 없음(임흥빈 1980). 상황이 달성된 경과 시간을 표시하는 '10분 만에'와 같은 부사어를 첨가할 때 (16나, 나')은 자연스럽게 (16가, 가')은 그렇지 않음.[10분이 사다리 전체를 오르는 시간이 아니라 사다리까지 도달하는 시간일 때에는 (16가')도 자연스러움]. (17나)도 (17가)와 달리 담벼락 전체에 페인트를 칠했다는 전체론적 해석을 지님.

- 핀란드어나 슬라브 제어에서는 내부 논항이 대격과 사격으로 교체될 때 전자는 종결성(telecity)을 띠고 후자는 비종결성을 띠는 현상이 있음(Richardson 2012). (16), (17)에서 '을'이 전체론적 해석을 보이는 것 역시 종결성이라는 상적 구분과 유관함.

5. 결론

- 처소 기능은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되고 여기서 방향은 다시 출처와 목표로 구분됨. 이러한 두 단계 구분에 위상이나 접경 개념이 더해지면 세 단계 구분이 발생함.
- 한국어의 처소 기능은 위치, 출처, 목표에 경로가 추가된 네 가지 구분 방식을 보임.
- 위치는 위상 개념이 더해져 내부와 비내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전자는 '에서'가, 후자는 '에'가 이를 담당함. '에서'와 '에'가 교체 가능한 환경에서는 '에서'가 배경의 의미를, '에'가 전경의 의미를 표시함.
- 목표는 경계 달음의 함의가 있느냐는 접경 개념에 따라 구분됨. 경계 달음의 함의가 있는 목표는 '에'가, 그러한 함의가 없는 목표는 '로'가 담당함. 경계 달음의 함의가 없는 목표는 방향으로 해석됨. 접경 개념은 확장되지 않은 공간을 가리키는 지점과 확장되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지역의 구분과 관련되는데, '에'가 가리키는 목표는 경계 달음의 함의가 있어 지역 개념을 전제하고 그러한 함의가 없는 '로'는 지역, 지점의 구분이 없음.
- 출처는 지역 개념을 전제함. 내부 위치를 가리키는 '에서'가 출처도 가리키게 됨. 중세국어의 '에'는 위치, 출처, 목표의 의미를 모두 표현하였는데 경계 내부의 의미를 표시하는 '서'가 결합한 '에서' 형식이 출처의 의미를 표시하면서 출처의 의미를 상실함.
- 경로는 '로'가 담당함. 경계 달음의 함의가 없이 목표를 가리키는 '로'가 출발점에서 목표점

에 이르는 경로도 가리키게 됨.

- 거리나 지속 기간이 행위가 축적되어 달성된 공간의 양이나 시간의 양을 한계 지어 표시할 때에는 그 뒤에 ‘을’이 결합함. 이때 거리나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성분은 부가어이고 그 서술어는 이동 동사로 국한되지 않음.

- 출처나 목표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지역으로 개념화하면 ‘에서, 에’로 표시되나 이들이 지점으로 개념화하면 ‘을’로 표시됨. 또 지역으로 개념화한 것이 지점으로 재개념화될 때에는 ‘에+을’ 형식이 쓰임.

- 처소 명사구가 달성의 상황 유형에서 상태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되면 피영향자로 해석되어 대격이 표시됨. 처소 명사구가 처소격으로 표시될 때에는 서술 행위가 그 전체에 적용된다는 함의가 없으나 대격으로 표시될 때에는 서술 행위가 처소 전체에 적용된다는 전체론적 해석이 발생함.

- ‘에서, 에’는 내부/비내부의 대립을 나타내고 ‘에, 로’는 경계 달음의 함의 여부에서 차이가 남. 거리나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부가어가 행위량의 유계성을 표시하거나 처소 명사구가 지역과 대조되어 지점으로 개념화하거나 달성 상황에 쓰여 전체론적 해석을 초래할 때에는 처소격이 아니라 대격조사 ‘을’이 쓰임.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의 조사가 상적 구분과 일정 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줌.

참고문헌

박양규(1972), 국어 처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안명철(1982), 처격 ‘에’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5-268.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174, 9-33.

임흥빈(1980),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학논총』 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1-130.

정희정(1988),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에’와 ‘고, 를’의 의미 비교-, 『국어학』 17, 153-175.

홍윤표(1978), 방향성 표시의 격, 『국어학』 6, 111-132.

홍재성(1983), 이동동사와 행로(parcours)의 보어, 『말』 8, 연세대학교 어학당, 151-167.

Blake, B. J.(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eissels, D.(2009), Spatial cases. In A. Malchukov & A. Spencer 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609-625.

Haspelmath, M.(2009), Terminology of case. In A. Malchukov & A. Spencer 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505-517.

Hjelmslev, L.(1935), La catégorie des cas: Etude de grammaire générale I (Acta Jutlandica: Aarsskrift for Aarhus Universitet 7.1), Copenhagen: Munksgaard.

Hjelmslev, L.(1937), La catégorie des cas: Etude de grammaire générale II (Acta Jutlandica: Aarsskrift for Aarhus Universitet 9.3), Copenhagen: Munksgaard.

Kittilä, S. & A. Malchukov(2009), Varieties of Accusative. In A. Malchukov & A.

- Spencer eds., *Oxford Handbook of Case*, Oxford University Press, 549-561.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lson, D.(2007), Events and case in Inari Saami, In I. Toivonen & D. Nelson eds., *Saami linguistics*, John Benjamins, pp 207-225,
- Richardson, K. (2012), Case. In R. I. Binnick ed., *Tense and Aspect*, Oxford University Press, 960-985.
- Smith, C. S.(1997), *The Parameter of Aspect*, second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MIT Press.